



미카엘 고아원 후원 후기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매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미카엘 고아원’은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가 아프리카 잠비아 빈민촌 지역에 공부방을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공부방을 열자 그동안 가난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에이즈나 말라리아로 부모님을 잃고 친척 집에 얹혀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먹지도, 공부를 하지도 못하고 노동시장에 내몰렸던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롭게 고아원을 세우고 빈민촌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먼 곳으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으니 아이들이 밥을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굶는 아이들을 위한 Daily Care Feeding Program(매일 점심 제공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빈민촌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고아원에서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보충수업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하자 가난한 살림 중에 어렵게 아이들과 살아가던 사람들도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주어 고마웠지만 고아원 운영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50명이었던 고아원 아이들이 순식간에 300명으로 늘어나 식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 전반적인 비용이 6배나 늘어났습니다. 후원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곳은 초등학교 졸업 시험 결과에 의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미카엘 고아원의 아이들은 대부분 좋은 성적을 받아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아원 아이들의 고학년 진학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수녀님께서는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병까지 얻으셨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주보 ‘사랑의 손길’에 이러한 소식이 소개되었고, 총 324분의 따뜻한 이웃들이 63,082,54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금된 후원금은 아이들의 교육비와 기숙사비,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아원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학비와 생활보조금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고아원을 문을 열었을 때, 삐쩍 마르고 기운이 없던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두려운 눈빛으로 서로를 견제하며 상처를 주고받던 아이들이 어느덧 밝고 기운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점차 꿈을 가진 아이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빈민촌 아이들을 돌보게 된 기쁨이 큰 걱정과 우려를 낳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사랑의 손길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걱정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움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저희 어린아이를 참으로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도 다 배불리 먹을 것을 주시는 참 좋은 하느님이 계시기에 저희는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이 순간에 충실하며 행복하게 아이들과 생활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신 은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미카엘 고아원 일동)